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아, 학원 안 다니는 아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교육은 일반화했다.

서를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데에 있다. 교과서를 펼치면 머리가 아프고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는 실질적인 학습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편집국 25시

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송은범 행정사회부 차장 seb1119@halla.com

아이히만은 명령을 성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퍼런 독일 나치스 아래서 그 누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뉴스-in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언제쯤

1차 결과 발표 지연 전망

○...제주도가 도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 1차 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외 공무원 6847명 가운데 공로연수, 파견자 등 300여명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등의 서류 제출한 상태.

앞서 도는 공무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우선 확보한 뒤 2015년 토지거래 신고 내역과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3월 말 조치사항 발표를 계획, 강대해기자

“시민 신뢰받는 제도 운영”

○...제주시가 올해 처음 시민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내부 평가만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시는 31일 시정 중점사업과 연계한 조직성과를 높여나간다는

한 달에 몇 권 읽었다는 '양적인' 결과 중심 독서보다 책 한 권을 '느리게 읽더라도 깊게'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읽는 속도'에 연연해선 안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의 언어 수준도 올라간다. 이에 맞춰 아이의 언어능력도 올라가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유명한 학원을 찾아가기 전에 '교과서를 탄탄하게 읽어들 수 있는' 독서 실력을 꾸준히 쌓도록 해야 한다.

사설

악성 미분양 심각, 해소대책 강구하라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바짝 얼어붙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지 않은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1221호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은 전달(1250호)보다 소폭(2.3%)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감소폭은 미미하다.

특히 완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1034호에 달한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도내 전

체 미분양의 84.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올해 1월 1063호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000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7%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신규 분양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판매상이나 다름없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고 있어서 그렇다. 4월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4㎡에 9억원대의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상하수도요금 누진제, 시대맞게 폐지를

수십 년된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물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엔 혜택을 주는 반면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구엔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올 상반기 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 가운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재 3단계로 된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한 달 사용량 기준 t당 단가를 20t 미만시 380원, 21~30t 620원, 31t 이상시 860원이다.

도는 요금제 개편 외에 수도물 갈따구 유출 재발견, 전국 꼴찌 수준의 유수율 등 먹는물 현안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제주 유수율은 48.9%에 그쳐 51%를 평속으로 버린다.

기준상 A가구 t당 380원, B가구 t당 620원이지만 개인별 사용량으로보면 A가구가 더 많다. 결국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는 혜택을 받는 반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구임상선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도는 요금제 개편 외에 수도물 갈따구 유출 재발견, 전국 꼴찌 수준의 유수율 등 먹는물 현안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제주 유수율은 48.9%에 그쳐 51%를 평속으로 버린다.

부고

안동우(제주시장) 어머니 풍천임씨 순자(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30일 01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1년 4월 1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1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 발인장소: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 장 지: 양지공원-김녕리 입산장 가족선영

- 남편 안창규
아들 안동수 며느리 이순희
동욱 한성숙
동우 이옥림
영호 오순경
딸 안복자 사위 박영길

※ 연락처 : 안동수 010-5001-6873
안동욱 010-9226-1228
안동우 010-5697-5374
안영호 010-5693-430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옥인(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기가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 아들 변봉남 며느리 고을생
수남 현은자
두남 강경숙
딸 변인순 사위 좌두현
금숙 양권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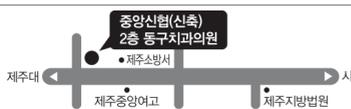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